2026 문화생명다양성 도서주간 – 책방지기 인터뷰

‘책방 틈’ 조수미 선생님 인터뷰

– 인터뷰어 및 작성자: 강원대학교 다문화학과 재학생 배혜빈, 유현희

유현희: 책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 책방을 열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책방지기: 책방을 열게 된 계기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요. 마지막 순간에 죽음에 이르는 어떤 순간에 ‘어떻게든 해볼걸’이라는 후회를 갖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게 마지막까지 응축해 있다가 결국은 책방을 하게 됐고요. 물론 보통 책방을 하는 사람들이 책하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친숙하다거나 활자나 텍스트를 통해서 뭔가를 익히는 즐거움이 더 있다거나 그런 거는 다 공통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랑 함께 모여서 책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미루고 미루다가 하게 된 건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배혜빈: 그럼 책방을 열고 싶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책방지기: 언제부터 했냐고요? 서울에서 살았고요. 서울에서 원주로 이사 온 지 한 올해가 7년째가 되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을 때 20년 지기 친구들이랑 책방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6개월 정도 같이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을 배신하고 ‘난 책방 안 하고 싶어. 너네 둘이 해.’ 그래서 걔네 둘이 그냥 쭉 책방을 하고 저는 그 이후로 책방 활동을 안 하고 있다가 원주로 왔고, 이제 그리고 작년에 다시 책방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책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한 6~7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있었던 거죠.

유현희: 그럼 '책방 틈'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책방지기: 책방 이름이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처음에는 뭐 '질문이 있는 시간', '틈과 곁' 오만 가지 것들이 다 있었는데, 살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 너무 틈이 없어'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네가 가진 성격대로만 살려고 해' 이런 의미 같았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게 틈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틈이 없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사는 게.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게 사람들 사이에? 혹은 나한테? 그런 틈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틈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원래 '틈과 곁'이었는데 어떤 작가님이 제가 책방을 시작할 때 이름을 얘기했더니 "곁까지 하는 건 너무 욕심인데요." 그랬어요. "하나만 집중하세요." 그때는 '곁이 뭐가 그렇게 곁까지 넣는 게 뭐 그렇게 욕심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작가님이 도와주셔서 이름이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곁까지 했으면 아마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 틈만. 한 글자 틈!

유현희: 그러면 책방이 어떤 공간이 되길 희망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책방지기: 독특하게 책방은 이렇게 정해진 컨셉으로 존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독특하게 책방은 어떤 사람이 주로 이 책방에 오느냐, 이 책방에서 이야기를 계속 얹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책방의 성격이 시시때때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향하는 책방은 '나는 공간을 열었으니 오는 그 독자 오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색깔을 만드는 걸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같이 할게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딱히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지향하는 건 있어요. 책을 함께 읽는 것. 그리고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활동들? 그다음에 소소하게 뭔가 자기가 만든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전시도 하는 거고, '만지작'이라는 손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하는 거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기서 뭐 하자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좋아요. 그럼 그게 책방의 색깔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되게 좋았어요.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명확하진 않지만 두 사람도 그렇고 저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뭘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하고 싶은 게 아주 작게라도 있으면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많이 기대가 돼요. 이 프로그램이.

유현희: 책방을 운영하면서 기억에 가장 남는 손님이 있으신가요?

책방지기: 1년밖에 안 되어 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 자주 오는 손님이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이 직장인들 여기 이제 심평원이니까 혁신도시 내에 많은 관공서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밥 먹고 가다가 이 책방에 들려요. 누군가. 그럼 그다음 사람이 "네~ 누가 들렀는데요? 여기 뭐가 있대요!", "'좋다'라고 해서 왔어요." 근데 또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도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릴레이가 되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 재미있어요. 그런 손님들의 사연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책방 얘기가 서로 전달이 되나 그거가 이렇게 그걸로 사람들이 오네. 그런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손님들 꼬리에 꼬리 무는 손님들!

유현희: 책방지기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거나 애정하는 책 한 권이 궁금합니다.

책방지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제 책을 잘 안 읽었는데 "무슨 책 읽는 게 재미있어요?"라고 물어볼 때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가 '지구에서 하나뿐'이라는 정세랑 작가의 단편 소설이에요. 이게 처음에 출판사에서 나왔을 때는 되게 오래됐는데 그리고 그냥 절판이 됐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 책을 어떻게 하다 보기 시작하면서 다시 복간이 된 거예요. 그 책을 추천하고 제일 아껴요. 왜냐하면 소설을 안 읽는 저희 남편 그 다음에 막 책 읽기 그러니까 엄마가 강요해서 교육상 읽히는 책이 아니라 정말 재미있어서 읽는 책으로 우리 가족이 모두 다 함께 읽은 책이 그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되게 인상 깊고 그 지구에서 하나뿐이라는 그 책에 하나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하나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진짜 그런 사람이 지금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책을 좋아하고 또 한 권은 여기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인생의 역사'라는 신형철이라는 사람이 쓴 에세이집이 있는데, 시랑 에세이. 시랑 에세이인데 원주에 제가 와서 사람들이랑 간헐적으로 책 모임을 하면서 그 책 모임 때 되게 폭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자기를 다 열어내면서 이야기했던 경험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은 원주와서 너무 좋아졌던? 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사람을 아주 가깝게 느꼈던? 첫 번째 책이어서 그 책을 많이 아껴요. 그리고 오면 꼭 그 두 책은 의심 없이 추천해요. 좋은 책이라고.

배혜빈: 그럼 지금까지 직접 기획하시거나 진행해 보신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책방지기: 지금까지 진행해 본 프로그램이요? 지난번에 왔던 그 북토크. 사실 (책방을

연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올해 1년 안에 제가 계획했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가 북토크였는데 지난번에 북토크를 기획해서 쭉 진행했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봐서 알고 있고. 그리고 저쪽에 가면 저기 손 제본이 보이잖아요. 이제 저기 위쪽에 노트를 만들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록물을 그 기록물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제본하는 그런 제본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책방이니까 당연히 낭독이나 독서 모임들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좀 독특한 건 '만지작'이라는 모임인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손으로 뭘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물건의 진심이야. 물건을 안 버려. 오래된 물건에 진심이야. 그리고 그걸 계속 막 이렇게 살려서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모임들을 기획하고 그것들을 전시하는 이런 프로그램 활동을 1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기획도 하고.

배혜빈: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해보지 못한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책방지기: 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죠. 왜냐하면 나는 1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책은 가까워요. 이 책이라는 물성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봐왔기 때문에 가까워. 근데 책방은 거리감이 있어요. 좀 달라~ 본인들도 그럴걸요? 소설책이나 어떤 책은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사놓고 읽는 거는 너무 편해. 책이라는 건 가까운데 책을 파는 책방은 낯설고 왠지 '들어가도 되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되도록 책방을 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좀 못해서 계속 그런 활동들 위주로 하고 싶고. 10월 달에 이미 늦어서 될런지 모르겠지만 시를 읽기 시작해서 좋아하는데. 사실은 다른 책보다 시집은 고르는 게 더 어려워요. 어려워 진짜 시가. 그래서 시집을 고른 다음에 시집의 시어들을 막 골라내서 저 뒤에 전시하는 흰 벽에 쫙 뿌려놓고 시어들을 따라가면 나한테 어울리는 시집이 나오는. 그래서 그 시집이 그러니까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워. 차라리 누가 골라주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집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그 시집을 이렇게 시어를 따라와서 우연치 않게 나한테 얻어걸린 그 시집을 읽고, 10월 어느 날 혹은 11월 어느 날 보름달이 뜨는 날 그 시집을 가져와서 한 편씩 좋아하는 시를 낭독하는 걸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책방을 1년 동안 이용한 사람들 함께 모여서 송년회를 하는 걸 하고 싶은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 많아요. 말 안 한 거 너무 많아.

배혜빈: 그러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나 참여자의 반응은 있을

까요?

책방지기: 일단 저 뒤에 전시하고 있는 '70 잇다'. 60세 이상 성인들이 모여서 책 읽는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은 말은 "나도 시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해준다는 거는 그 모임이 자기 안에 어떤 변화를 나타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주는 분. 혹은 '만지작'이라고 각자 하고 싶은 모임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하는 그 모임, 거기서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예전에 자수 놓은 거를 못 버리고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어. 그때 잠깐 그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은 아닌데 책방에 들렀다가 그 모임 하는 걸 이렇게 보고 계신 어떤 분이 "그렇지 뭐든지 다 쓰임을 찾을 수 있어. 그러면 너무 좋아"라는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쓰임을 찾는다는 말이 '만지작'이라는 프로그램을 대표할 수 있는 말인데 그거를 참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잠깐 와서 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되게 고마웠어요. 그런 얘기를 직접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더 좋을까? 라는 걸 짐작해 보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해 주신 분이 기억이 나요.

배혜빈: 그럼 책방을 운영하면서 책이나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책방지기: 넓어지죠. 당연히 넓어지죠. 그때 우리 북토크 같이 있었으니까 그 예를 들어볼까요? 그 여기에 앉은 아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아이가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바꿔놨잖아요. 그냥 이 북토크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아이가 의견을 낸 거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뒤에 그런 걸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사람만 바라보게 하는 거 책방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역사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거. 그거 말고도 더 있는 거야. 70 잇다 어르신들도 어르신들이 뭘 이렇게 책을 읽고 그걸 쓸 수 있을까 글을? 근데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이러는 거?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진 그 사람과 다양하게 많이 만날 수 있는 일.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잘 모르겠어. 그거는 너무 세상도 빨리 변하고 나도 세상을 잘 모르고 그래서. 근데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폭넓게 만나게 되는 부분은 책방에서 가능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배혜빈: 다 다른 사람들이 책방에 모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공간을 통해 연결되는 모습

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책방지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 이 책방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뭔가 교류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책방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책방 하기를 잘했다. 그리고 이런 모임을 정말 계속 만들고 싶다. 그리고 어떤 걸 같이 하자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제발 많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 와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가면.

배혜빈: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책방지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관계에 속해 있잖아요. 이렇게도 지금 관계가 맺어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셋이 있는데 뭔가 우리가 보지도 못한 어떤 다양한 것이 이렇게 떨어졌어. 진짜 별난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는지 세 명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지는 못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좋게 얘기하든지, 약간 좀 아주 맛있다고 얘기하던지, 아니면 '비싸지 않고 괜찮네. 잘 만들었네.'라고 얘기하든지,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봤을 때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책은 솔직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책은 딱 나랑만 관계하거든 딱 나랑만의 관계야. 더 이상의 관계성이 없어. 그리고 얘를 통해서 이 책에서 나온 이 과일 주스를 가지고 내가 얘랑 씨름 할 수 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실컷 좋다고도 했다가 나쁘다고도 했다가 맛 없다고 했다가 건강에도 안 좋다고 했다가 아니 네가 제일 좋다라고 했다가 사람들이 보면 '무슨 그렇게 변덕스러워? 너는 줏대도 없어? 생각도 없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을 책은 나랑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얘 앞에서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돼요. 책은. 그래서 이 다양성을 접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나를 들여다보는 게 편해요. 좀 편한 것 같아. 그리고 이 다양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조금 내가 정리되는 듯한?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이미 나는 얘랑 한바탕 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좀 정리돼서 얘기할 수 있어.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책이 좀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나를 아주 아주 솔직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완벽하게 직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 같아요. 그런 면이 좋아요. 책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막 읽을 수 있잖아요. 야한 것도 있고, 막 폭력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막 지독하게 염세적이거나 지독하게 우울한 것도 있고~. 사람들이랑 같이 우울한 거 얘기하면 다 같이 우울해지고 내가 이런 우울을 얘기해도 되나 나 혼자 기쁜 걸 얘기해도 되나 저 사람

은 안 그런데 막 이렇게 눈치 보잖아요. 관계라는 게 있는데. 근데 책은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얘는 온통 나를 쏟아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배혜빈: 뭔가 이 질문은 저희 과를 말할 수 있는 단어들 중에 다양성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다양성을 어떻게 배울 수 있나 약간 이런 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어요.

책방지기: 그래서 분야를 넓혀서 읽으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내가 주력하는. 주력하는 장르가 있잖아요. 소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추리 소설만 좋아해요. 저희 딸은 추리 소설만 좋아해요. 나 정말 추리 소설 왜 읽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추리 소설만 좋아해. 근데 이제 그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력하는 장르는 확실히 주력하고 좀 안전하게 안전하고 나를 직면하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게 내가 좀 단단해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책도 일단 무조건 다양하게 읽는 게 좋아요. 제 말은 어려운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쉬운 책을 읽어도 돼요. 단, 다양하게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중학생이 읽을 것 같은 책, 초등학생이 읽을 것 같은 책, 어떤 책이라도 좋아요. 그림책도 좋고. 다만 주제가 다양한 거를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운 책 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나도 어려운 책은…. 저기 보이죠. 벽돌 책. 안 봅니다. 저거 우리 남편 거예요. 저거 이 가운데 둬 가지고서 어디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지 지금 못 보내고 있는데. 존중합니다. 저희 남편. 벽돌 책 읽는 거, 여기서 그 사람은 다양성을 봐요. 근데 저는 이거 가지고 다양성이 안 돼요. 이렇게 어려운 거 가지고 같은 주제여도 좀 다르게 푸는 거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이 아니라 다양한 책을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현희: 책방을 운영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배우신 것 있을까요?

책방지기: 운영하면서 깨닫게 된 거는 내가 별로 책을 안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꿈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 꿈을 '내가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난 그거를 하고 싶어. 근데 그거를 딱 했는데 그걸 하기 전에 '내가 책을 정말 좋아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100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 정말 책방을 해보면, 사실은 하다 보면 100보다 더 좋아해야 되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100이 아니라는 걸 내가 깨닫는 거야 100이 아니라 한 80? 70? 그것보다는 책방이라는 공간에서 하고 싶은 다른 활동이 '난 더 좋았나 봐.'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책을 책방 열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오히려 책을 더 열심히

읽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저한테 책 모임이 중요해요. 우리 책방이나 다른 책방에서 하는 책 모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책 모임이 있어야 저도 책을 읽어요. 예를 들면 바름 책방 사장님은 문학을 너무 좋아하셔서 바름 책방 사장님은 계속 책을 읽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리고 운영하면서 깨닫는 거? 사람이 오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재미있게 보내야 되지? 책방에서? 실제로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방문하지 않는 나 홀로 있는 시간. 보통 책방 하는 사람들이 '책방 하면 혼자 책 읽고 얼마나 좋아 조용한 공간에서 커피 이렇게 해놓고 막 음악 틀어 놓고 손님 안 오면 책 읽으면 되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뭘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할 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필요해요. 그 시간을 못 견디면 책방 하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너무 외로워져요.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려고 책방을 열었는데 아무도 안 오면 내가 왜 책방을 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재미있게 보내려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유현희: 어떤 시도들을 하시고 계셨어요?

책방지기: 그래서 저는 맨날 가구를 옮겨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책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전시를 바꾼다든지, 홍보물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책의 배열을 바꾼다든지, 책을 주제별로 다시 논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요. 그리고 다음 달에 큐레이션을 뭐 하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하지? 뭐 이런 생각들? 계속. 누가 오든 안 오든 혼자 재미있으려는 그런 생각과 움직임 그런 것들이 책방은 더 필요해요. '쟤는 혼자 잘 놀아' 그런 얘기. 그런 얘기 책방 주인한테 진짜 필요한 것 같아. 쟤는 혼자서도 잘 놀아. 그거 정말 필요해요.

유현희: 좌우명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책방지기: 오늘이,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잠깐 잠깐 생각해 보는 거? 갑자기 우울할 때 있거든요? 갑자기 뭔가 불안에 쌓일 때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너무 짜증 날 때 있거든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갑자기 이유 없이 혹은 이유가 있는 짜증과 불안과 분노가 있을 때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걸 생각할 필요 없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갑자기 들 때. 그리고 제일 힘든 거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진짜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 좋은 책방도 아침에 나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귀찮아. 진짜 너무 귀찮을 때, 그럴 때 갑자기 그냥 한 번 환기해요. '어? 다시는 안 돌아올 시간.' 그래서 잘

살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갑자기 '힘을 내서 막 뭐를 해야지'가 아니라 이 순간은 지금뿐인데 조금 정신 차리자. 이 정도? 이 정도지. 그걸로 갑자기 열심히 나가서 책을 판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근데 다만 '지금 이 순간 다시 안 돌아옴!' 이러고 한번 이렇게 정신 차리는 거? 그 정도예요. 그리고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좌우명은 3일이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3일 뒤에 또 새로운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인정하면 돼요. 3일만 존재하는 나의 좌우명이 있는데 그걸로 계속 살면 돼.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만으론 살 수 없어요. 그런 질문은 있지도 않아.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나한텐 없어요. 다만 그 선택마다 후회하더라도 선택해 놓고 후회하고, 또 3일 후회하고 또 선택하고 3일 후회하고 이렇게 계속.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은 원래 후회하라고 있는 거지. 잘되라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유현희, 배혜빈: 감사합니다.